

해외의약뉴스

어린이 약물 과다복용을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조치

개요

어린이 약물 과다복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약 보관함을 청소하고(Clean out your medicine cabinet), 보이지 않는 곳에 약을 보관하며(Keep medications out of sight). 액제약에 'slow-flow adapter'를 부착한다(Consider attaching a slow-flow adapter to liquid medications).

키워드

어린이, 약물, 과다복용

3단계의 조치로 뜻하지 않은 어린이 약물 과다복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아과에서의 최근 연구는 6세 이하 어린이 중 방치된 약물 노출(unsupervised medication exposure)과 관련한 응급실에서의 동향을 검토했고, 관련하여 응급실 방문 수가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매년 평균 5.7%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매년 평균 6.7% 감소하는 것으로 뒤바뀌었다. 연구는 위험발생빈도와 중재가능성에 기반한 목표예방활동으로 역전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실수로 약물 과다복용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사가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몇가지 조치가 있다.

1. 약 보관함을 청소하라.

전형적인 가정상비약 보관함에는 개인별 처방약, OTC 진통제, 종합비타민, 한방약이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킨다. 연구진은 방치된 약물 노출로 응급실을 방문한 91%의 경우는 단지 1개의 약물(보통 경구 처방 고형제제 45.9%, 경구 일반의약품 고형제제 22.3%, 또는 경구 일반의약품 액제 12.4%)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Michael 약사(pharmD)는 어린이 주위에 사용하지 않는 약을 두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2. 보이지 않는 곳에 약을 보관하라.

카운터(counter)에 출지어 처방약을 두는 것은 복약순응을 위해 유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일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시선 밖으로 약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으로도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약병을 다시 닫을 때, “딸깍” 소리를 듣거나, 더 이상 약병이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실수로 약물을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교육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약을 사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the US Centers for Disease and Prevention)의 “UP and Away” 캠페인은 아이들의 안전한 약물요법에 대해 부모

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3. 액제약에 'slow-flow adapter'를 부착하라.

응급실을 방문한 방치된 약물 노출 어린이의 12.4%는 OTC 액체 경구용 의약품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네 가지 액체 경구용 의약품(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32.9%), 기침감기약(27.5%), 이부프로펜(ibuprofen, 15.7%) 그리고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15.6%))이 91.2%를 차지했다. 액상형 약물 용기에 특수마개(약 병의 목 부분에 부착된 고무마개)를 부착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마개가 완전히 닫혀있지 않더라도 어린이가 본의 아니게 경구용 약물 복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원문정보 ■

<http://www.pharmacytimes.com/news/3-easy-steps-to-curb-child-drug-overdoses>